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41183

2011년 2월
교육학 석사(영어교육)학위논문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오 초 롱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American Dream in *The Grapes of Wrath*

2011년 0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오 초 롱

『분노의 포도』 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지도교수: 최 한 용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영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 교육 전공

오 초 롱

오초롱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강정석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한용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기군 인

2010 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I. 서론 1

II. 1930년대 미국의 사회적 배경 9

III. 아메리칸 드림의 형성 배경 11

A. 시대적 및 역사적 배경 11

B. 아메리칸 아담의 원형 14

IV. 『분노의 포도』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 20

A. 미국 서부의 개척정신 20

B. 성서적 의미와 가나안(Canaan)으로서의 서부 24

C. Joad가의 삶과 서부의 상징적 의미 29

V. 결론 37

참고 문헌 40

ABSTRACT

A Study of the American Dream in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Oh Cho-rong

Advisor: Prof. Choe Han-yong, Ph.D.

Dep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discuss how the American Dream is shown in *The Grapes of Wrath*. This paper consists of four parts: Chapters Ⅰ to Ⅴ. In Chapter Ⅰ, the introduction focuses on the aim of this paper and how Steinbeck's life experiences shaped his philosophy and literary themes. In chapter Ⅱ, I deal with the social environment of America in the 1930s. In chapters Ⅲ and Ⅳ, I comment on the religious and literary concepts of the American Dream; in particular, I will discuss Steinbeck's characterization of the American Dream.

The themes in Steinbeck's novels range from love and the toughness of life to science. Although he talks about different themes throughout his novels, each novel covers similar themes. For example, his novels are based on non-teleological ideas, naturalism, humanism and Emerson's *over-soul*. *The Grapes of Wrath* also includes these concepts.

Steinbeck explores these themes by dividing *the Grapes of Wrath* into two sections: the main story chapters are interleaved with the general story of farm

migrant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He provides extensive details about the situa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in the inter-chapters. Although *The Grapes of Wrath* is a novel, he did not ignore historical facts. Because he was born and raised in California, he had lots of opportunities to see the lives of migrant's workers up close. Thus, he was able to reveal the reality of people's lives in a realistic style.

Just as the Jewish people in the Old Testament were searching for The Promised Land, so were the migrant farmers moving west. California is a metaphor for "the land of milk and honey" from The Old Testament. *The Grapes of Wrath* can be viewed in several ways: the humanity among the characters as well as the story as a biblical metaphor of the Jews wandering in the desert in search of the promised land.

Steinbeck shows how the concept of the American Dream changes over the course of the whole novel. In essence, the American Dream is the hope for a better life. In the beginning, everyone who migrated to California had hopeful dreams. Even though they were not successful in their past lives, they thought that they could find new jobs and new lives in "the Promised Land." The Joads had hoped their dreams would come true. At the end of the novel, the Joads' circumstances were not any better; however, they kept fighting to overcome. Casy said "maybe all men got one big soul and everybody's a part of it," and Rose of Sharon demonstrates this at the end of the novel when she breastfeeds a starving old man.

Steinbeck wrote *the Grapes of Wrath* based on migrants' real lives in California. Throughout his novel, he shows that no matter how awful the reality was, the Joads did not give up. They were discouraged, but they kept getting on with their lives even in inhumane situations. Their original American dream had eluded them, but they continued to chase their amended dreams of tomorrow.

Ⅰ. 서　　론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 (1902-1968))은 캘리포니아 주의 샐리너스(Salinas)에서 태어나 유년시절과 그의 대부분의 일생을 이곳에서 보냈다. 그의 고향은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었다. 샐리너스, 특히 샐리너스 계곡은 그의 많은 작품의 문학적 배경이 되고 있지만 그의 문학적 사상은 과학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스타인벡은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친구인 생물학자 리케츠(Edward F. Ricketts)와의 교우관계를 통해 생물학 지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리케츠와의 항해를 통해 직접 경험한 내용이 생물학적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그의 작품 『코테즈 바다의 항해 일지』(*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에서 그의 생물학적 지식과 생물학에 대한 그의 관심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생물학적 관심을 담은 작품 말고도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스타인벡의 작품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그가 약자에 대한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1919년에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자 화물선을 타고 동부에서 잠시 생활하였던 그 당시의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곳에서 리포터, 벽돌공, 도로 공사 인부, 품팔이 등 다양한 잡일을 하였고 그런 일을 통해 만난 사회 하층민들과 일반 서민들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스타인벡은 로맨스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황금의 잔』(*Cup of Gold*) 으로 등단함으로써 초기엔 다소 감성적인 작품을 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앞에서 언급한 계기들로 그는 약자들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후 그의 여러 작품에서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었고 사실적인 그들의 생활을 스타인벡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후반부 작품은 대부분 사실적인 묘사로 이루어져 있어 일부에서는 그를 사실주의 작가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를 이 범주의 작가로 평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비평가들은 스타인벡 작품의 다양성을 통해서 그를 감상주의자, 사회주의자, 자연주의자, 생물학적 작가, 프로레타리아 작가 등 여러 이름을 붙여 그를 칭하기도 한다.

스타인벡의 학회 창립자이자 핵심 연구자인 테츠마로 하야시(Tetsumaro Hayashi)는 스타인벡의 작가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스타인벡의 문학적 본질을 첫째, 완벽한 작가적 역량, 둘째, 선 대 악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대 운명 등과 같은 심오한 주제나 갈등을 다룸으로써 대중에게 호소력을 지닌 문학, 셋째, 유머와 인정을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는 작가의 태도, 넷째, 독창적이고 매혹적인 다양한 모형적 인물의 창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미국의 해설자이자 대중 철학자라는 점 등으로 스타인벡과 그의 작품에 대해 평가한다.[1)]

스타인벡은 위대한 미국 소설가가 되기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문학 사조가 담겨져 있다. 첫 번째로, 생태학적 사상을 들 수 있다. 소설은 허구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이고 생태학은 있는 사실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소설과 생태학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다른 특성을 지녔지만, 이들을 접목하여 스타인벡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을 지닌 소설을 썼다. 스타인벡은 생태학적 사상을 순수 자연주의 사상에 근거를 두었으며 이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까지 확대된다. 그는 남다른 과학에 대한 애착을 보여 왔고 그의 애착은 그의 작품에 묻어있다. 그 당시 어느 다른 미국 소설가들도 과학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스타인벡은 계속적으로 그의 작품에 과학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비록 스타인벡의 초기 작품들은 그의 성장 배경에 따라 로맨스 소설이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해양 생물학자 친구 리케츠(Ricketts)와의 교류와 스타인벡의 캐롤 헤닝(Carol Henning)과의 첫 번째 결혼 이후에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더욱 현실적인 소설을 써갔다. 생태학적 사상은 “비 목적론적 이론” (Non-teleological ideas)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타인벡은 자신의 작품 『코테즈 바다의 항해 일지』에서 “비 목적론적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Non-teleological ideas derive through "is" thinking, associated with natural selection as Darwin seems to have understood it. They imply depth, fundamentalism, and

1) Tetsumaro Hayashi, “Why Is Steinbeck's Literature Widely Read?--What Is the Essence of His Literature?” *Steinbeck Qurterly*, Vol. 13, Nos. 1-2 (Winter-Spring, 1980), p. 21. 최한용, “John Steinbeck의 소설에 나타난 American Dream의 주제,”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1, p. 21에서 재인용.

clarity-seeing beyond traditional or personal projections. They consider events as outgrowths and expressions rather than results; conscious acceptance as a desideratum, and certainly as an all important prerequisite. Non-teleological thinking concerns itself primarily not with what should be, or could be, or might be, but rather with what actually "is"-attempting at most to answer the already sufficiently difficult questions *what* or *how*, instead of *why*.[2)]

이 비 목적론적 이론은 『승산 없는 싸움』(*In Dubious Battle*)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이 이론은 집단을 큰 하나로 보지만 그 집단은 개체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개체는 자신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기억이나 감정에 의존하고 있다.

스타인벡은 그 집단이나 집단의 단위를 군집(phalanx)이라고 이야기 했다. 목적론적 이론은 사람간의 갈등이나 주위환경과의 갈등을 다루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의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하지만 비 목적론적 이론은 이와 반대로 사람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전개한다. 스타인벡은 비 목적론적 이론의 관점에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최대한 비인칭 관점에서 썼다. 즉, 일인칭 시점은 가장 자기중심적인 서술방식이기 때문에 자제하였고 객관적인 시점인 삼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의 작품을 썼다.[3)]

스타인벡은 그의 작품들에서 전형적인 영웅상을 그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통적 문학 기준과도 다른 인물들을 작품에서 그리고 있다. 이런 비 목적론적 이론을 바탕에 두고 쓴 그의 작품에 대해 일부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이 독자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자들의 관심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글의 짜임새도 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의 작품 중에서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의 작품의 마지막 장면은 대표적인 비 목적론적 관점에서 쓴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인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한 노인에게 로즈 오브 샤론이 자신의 젖을 물리는 장면을 로맨틱하고 애로틱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어른에게 여인의 젖을 물린다는 관점 자체가 독자를 거북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억지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위와 같은 장면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타인벡의 비 목적론적 관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

2) John Steinbeck, *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 (New York : The Viking Press, 1951), p. 126.

3) Jackson J. Benson, "John Steinbeck: Novelist as Scientist,"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10, No. 3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spring, 1977), p. 117.

스타인벡은 모든 생명은 하나이며, 신성하다는 생각을 마지막 장면을 통해 이야기 하고 있다. 목사 케이시가 이 작품에서 “he foun′ he jus′ got a little piece of a great big soul.” (p. 510)[4] 이라고 이야기한 사상이 마지막 장면에서 죽어가는 노인에게 젖을 물리는 로즈 오브 샤론의 모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사상은 자연주의이다. 자연주의는 다윈의 진화론(Darwinism)에 그 뿌리를 두며 진화론에 과학을 접목하여 만들어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트(James D. Hart)는 자연주의를 이와 같이 설명한다.

> Naturalism conceives of man as controlled by his passions, or by his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Since in this view man has no free will, the naturalistic writer does not attempt to make moral judgements, and as a determinist he leans toward pessimism.[5]

문학에서의 자연주의는 인간이 사회와 경제적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자연주의 사상을 지닌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자유의지(free will)가 없기 때문에, 자연주의 작가는 그 인물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배제하며 결정론적 관점에서 그 인물을 염세적으로 그려낸다. 또한 인생을 덫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자연주의 관점의 문학작품에서 인물들이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주인공이나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서 이 같은 요소가 들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연주의 작품에서의 인물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가지 못하고 외부 환경의 지배로 인해 통제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문학작품에서는 인물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배제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문학이 공정하고 과학적인 객관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케이디(Edwin H. Cady)와 퍼스트(Lillian R. Furst)는 자연주의의 문학작품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6] 물질

---

4) John Steinbeck,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Viking Press, 1939), p. 510. 이후 이 텍스트의 인용은 괄호 속에 쪽 수만 표기함.

5) James D. Hart,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8), p. 517.

6) Warren French, "John Steinbeck: A Usable Concept of Naturalism," *American Literary Naturalism: A*

주의적 결정론(materialistic determinism)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자연주의는 소설이라기 보다 보고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자연주의는 물질에 대해 비도덕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즉, 자연주의 작품은 윤리적 기준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그저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기록할 뿐이다. 미국의 자연주의 소설로는 대표적으로 드라이저(Dreiser)의 소설인 『시스터 캐리』(*Sister Carrie)* 와 『미국의 비극』(*An American Tragedy)* 을 들 수 있다. 스타인벡의 소설로는 『분노의 포도』를 자연주의 소설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소작농들이 대규모의 은행과 대 지주들에 의해 자신의 땅을 뺏기고 집 없이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며 굶주려 있는 모습은 소작농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역할 수 없는 힘겨운 운명으로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상으로 인본주의를 들 수 있다. 스타인벡은 전반적 문학 작품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인본주의란 14c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시작된 사상으로 신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존엄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이다. 주요한 내용은 자연의 발견, 인간의 가치 평가, 인간 의욕의 확대, 연애 예찬, 기계의 발명 등등이 있고 인간의 생명, 인간의 가치, 인간의 교양, 인간의 창조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긍정하며, 이것을 보호하여 보다 풍부한 것을 높이려 한다.[7] 즉, 인본주의의 핵심은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개념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삶을 주장한 것이며 상실된 인간성은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타인벡은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 있고 기계화, 문명화에 의해 비인간적 대우를 받는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싸워나가는지에 대해 작품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비인간화에 대한 스타인벡의 의지를 『에덴의 동쪽』(*East of Eden*)에서 잘 보여준다.

> "Our species is the only creative species, and it has only one creative instrument, the individual mind and spirit of a man... Once the miracle of creation has taken place,

---

Reassessment, ed. Yoshinobu Hakutani and Lewis Fried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ates Verlag, 1975), p. 63.

7) 무태리작, 『현대의 휴머니즘』 (서울: 풀빛, 1983), p. 21.

the group can build and extend it, but the group never invents anything. The precious lies in the lonely mind of a man...."

And this I believe: that the free, exploring mind of the individual human is the most valuable thing in the world. And this I would fight for: the freedom of mind to take any direction it wishes, undirected. And this I must fight against: any idea, religion, or government which limits or destroys the individual...."[8)]

또한 『분노의 포도』에서도 자신의 원래 농토를 빼앗기고 서부행을 결심하고 떠나는 조드 일가(The Joads)의 여정의 곳곳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그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작가의 철학이 잘 나타난다.

네 번째로 스타인벡의 문학사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The Whole Picture" 라고 표현된 에머슨(Emerson)의 범신론(over-soul)이다. 인간 개개인의 영혼은 서로 모여 집단을 이루고 다시 하나의 커다란 영혼으로서 대자연을 형성하고 그 대자연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존재인 우주를 구성한다는 것이다.[9)] 에머슨은 인간은 연속과 분리와 부분과 입자 속에서 살아간다고 보았으며 그 개개인은 전체를 구성하는 영혼이라고 보았다. 모든 것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순환하며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에머슨의 범신론이다.

Nature is the incarnation of a thought and turns to a thought again, as ice becomes water and gas. The world is mind precipitated, and the volatile essence is forever escaping again into the state of free thought. Hence the virtue and pungency of the influence on the mind of natural objects, whether inorganic or organized.[10)]

즉, 자연과 정신은 일치되어 있으며 에머슨은 자연을 살아있는 현실로 파악함으로서

---

8) John Steinbeck, *East of Eden* (New York: Penguin books, 1952), pp. 171-72.

9) 장경근,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에 관한 연구-Humanism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21에서 재인용.

10) R. W. Emerson, *Essay, Representative Men etc. and Poems* (London: Collins Clear Type Press, 1954), p. 254.

인간이 대자연을 통해서 범신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스타인벡은 에머슨의 범신론을 자신의 작품 『분노의 포도』에서 캐이시(Jim Casy)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캐이시가 작품 안에서 "Maybe all men got one big soul and everybody's a part of it"(p. 33)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작가의 범신론적 사상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 한 네 가지 사상이 스타인벡의 문학사조에 큰 뿌리라는 것은 카펜터(Frederic I. Carpenter)가 쓴 "철학적인 조드가"(The Philosophical Joads) 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바 있다. 카펜터는 위 논문에서 스타인벡의 19c 미국적 인생관에 대해 삼대 요소는 에머슨의 범신론(Over-soul)과 자립(Self-reliance), 위트먼(Whitman)의 인간애와 민주주의, 그리고 제임스(William James)와 듀이(John Dewey)의 실용주의(Pragmatism)사상이라고 이야기 한다.[11]

스타인벡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 그의 작품에서 서부행(westerning)의 의미와 아메리칸 드림에 관한 연구가 핵심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다. 카펜터(F. I. Carpenter)는 그의 또 다른 논문 "존 스타인벡: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자"(John Steinbeck: American Dreamer)에서 1940년대 초반에 표면적으로 다양해 보이는 스타인벡의 작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꿈과 현실의 상호작용"이라는 일관된 작품 의도와 사상이 흐르고 있으며, 이것은 아메리칸 드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12] 또한 1985년에야 오웬스(Louis Owens)가 *John Steinbeck's Re-vision of America*를 출간함으로써 카펜터 이래 40여년 만에 스타인벡의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한 소설에서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를 깨닫게 하고, 그 꿈의 대안으로써 "인간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가의 의도를 잘 나타내었다.[13]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II장에서는 1930년 미국의 사회

---

11) Frederic I. Carpenter, "The Philosophical Joads," *The Grapes of Wrath: Text and Criticism*, ed. Peter Lisca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7), p. 719.

12) Frederic I. Carpenter, "John Steinbeck: American Dreamer,"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ed. E. W. Tedlock, Jr and C. W. Wicker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57), p. 68.

13) Louis Owens, *John Steinbeck's Re-vision of America* (Athens: Univ. of Georgia Press, 1985), pp. 3-4.

적 배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의 형성 배경을 시대적 또는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아메리칸 아담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짚어보겠다. IV장에서는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서부의 개척정신, 성서적 의미와 가나안으로서의 서부 개척지와 아메리칸 드림, 그리고 조드가의 삶과 서부의 상징적 의미로 나누었으며 조드가의 삶과 서부의 상징적 의미는 소설에서 어떻게 미화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결론에서는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의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II. 1930년대 미국의 사회적 배경

스타인벡이 작가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난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으로 인한 사회혼란의 시대였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대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문학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심리적으로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스타인벡은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여 작품에서 인간의 첨예한 갈등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작가의 사명으로 여겼다. 그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등장인물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자들이나 사회전반으로 전이하여 생각하게끔 하는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의 작가로서의 전성기인 1930년대에 『천국의 목장』(*The Pastures of Heaven, 1932*), 『미지의 신에게』(*To A God Unknown, 1933*), 『토티아 평원』(*Tortilla Flat, 1935*), 『승산 없는 싸움』,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 1937*), 단편집『기나긴 계곡』(*The Long Valley, 1938*), 그리고 그 이듬해에 『분노의 포도』등 일곱 권의 소설을 썼다. 그 당시 미국은 대 공황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있었고 그로 인해 모든 미국인이 힘든 생활을 하였다. 특히 국가가 힘들어지면 농민,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힘든 생활을 하였다.

그의 작품 중 『승산 없는 싸움』과 『분노의 포도』에서 강력한 사회의식을 표출했고 힘없는 자들을 위한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는 프로레타리아 작가라는 칭호도 얻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작품들이 뉴욕이나 시카고의 거리나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경제 공황하의 농장에서 저자가 직접 경험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스타인벡의 주된 관심이 좌파 이데올로기에 있다라기보다는 극한 상황에서 집단이 보여 주는 생물학적 반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단순히 프로레타리아 작가라고 칭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스타인벡이 하층민들의 힘겨운 생활을 사실적으로 작품에 담았던 이유는 그 당시 미국이 대공황으로 힘든 시기였고 그 고통의 큰 피해자가 농민들과 노동자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은행의 도산으로 인해 통화 공급이 감소하여 소비자들은 구매에

소극적이 되고 그로 인해 물가도 하락하였다. 제조업자들과 상인은 가격을 낮추고, 생산을 감축하며, 노동자를 해고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도시의 늘어나는 실업자만큼이나 농촌 지역도 상황은 심각해져 갔다. 농가소득이 감소했고, 미국 전체 농민의 3분의 1이 토지를 잃었다. 게다가 대평원(Great Plains)에 있는 대규모의 농업 정착지역의 대 격변적인 자연 재앙과 미국 역사상 최악의 가뭄 때문에 농민들의 고통은 더해졌다. 텍사스 주에서 북쪽으로 다코타 주에까지 펼쳐진 '황진지역'은 1930년부터 강우량이 점차 감소하고, 그 반면 열사량은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뭄이 10년간 지속되자, 한때 비옥했던 농업지역이 거의 사막화되었다.

많은 도시의 실업자들처럼, 많은 농민들도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났다. 특히 땅을 잃은 남부의 많은 농민들은, 흑인이든 백인이든 일거리를 찾거나 도움을 바라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방랑했다. 황진지역을 떠난 수십만의 가족들은 그들이 떠나온 곳보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은 캘리포니아와 다른 주들로 옮겨 갔다. 그들은 오클라호마주에서 왔기 때문에 종종 "오키즈"(okies)라고 불리었다. "오키즈"[14]라는 의미는 캘리포니아로 건너온 이주민들을 낮춰 부르는 언어로 쓰여졌다. 많은 이주민들은 농업 이주자들로서, 기아선상의 임금을 받으며 과일과 농작물 따는 일을 하러 농장에서 농장으로 떠돌아다녔다.[15] 농업 이주자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었고 단지 농사짓는 일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토지가 없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지을 상황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작물을 따는 단순 노동으로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0년대 고향을 잃은 실향민들에게 캘리포니아라는 곳은 하나 남은 희망의 장소였다.

스타인벡의 여러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분노의 포도』에서 캘리포니아의 의미와 아메리칸 드림에 관하여 어떠한 시각으로 다루었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14) John Steinbeck 작품 *The Grapes of Wrath*의 p. 299에서 언급되어졌다.

15) 앨렌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3』(서울: 휴머니스트, 2005), pp. 110-11.

III. 아메리칸 드림의 형성 배경

A. 시대적 및 역사적 배경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영국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 당시 영국의 종교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영국에서 캘빈이 운명 예정설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이야기 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 여러 종파로 확산되어졌는데 그 중 두드러진 종파로 영국의 청교도였다. 튜더 가문 (The Tudors)의 마지막 왕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스튜어트 가문(The Stuarts)의 첫 번째 왕 제임스 1세 (James Ⅰ)가 즉위하자 퓨리턴들의 불만이 증폭되었다. 영국의 퓨리턴들이 신세계로 이주하는 계기가 된 것은 이러한 국내 정세 때문이었다. 제임스 1세는 찰스 1세가 죽고 나서 즉위 하였다. 그는 퓨리턴들을 한층 더 적대시했고 수많은 퓨리턴들을 종교적 이유로 감옥에 가두고 탄압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일부의 퓨리턴 상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기업을 조직하기 시작했다.[16]

신세계 미국은 고대 그리스의 고원, 이상향이 있었다는 전설로 유명한 아르카디아(Arcadia)이고, 새로운 에덴의 동산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천국의 왕국(a Kingdom of Heaven on Earth)이 되리라 사람들은 희망했다. 이들이 꿈을 갖고 미국에 오게 되어 무언가 이루고자 하였던 바램을 아메리칸 드림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아메리칸 드림이란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국적인 이상사회를 이룩하려는 꿈을 뜻하는 말로써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인이라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소망으로 무계급 사회와 경제적 번영의 재현, 자유롭게 종교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압제가 없는 자유로운 정치 체제의 영속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일찍이 1654년에 존슨(Edward Johnson) 선장은 구대륙에 지쳐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미국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소개했다. 존슨 선장은 "그곳"을 신이 창조한 새로운 천국이라고 하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글 속에 그대로 묻어나 있다.

---

16) 엘렌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pp. 53-54.

All you the people Christ that are here Oppressed, Imprisoned and scurrilously derided, gather yourselves together, your Wifes and little ones, and answer to your several Names as you shall be shipped for His service, in the Westerne World, and more especially for planting the united Colonies of new England... Know this is the place where the Lord will creat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in new Churches, and a new Commonwealth together.[17]

사람들은 에덴 신화가 현재의 미국이라는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인들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신세계에 정착한 시기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계 없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다. 수 백년 간의 가난, 고통, 부패의 시간 끝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파라다이스로 되돌아가기 위한 신화적 열망을 채워줄 장소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상적인 새 세상에 대한 희망은 300년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아메리칸 드림은 다양한 방면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아메리칸 드림의 정신이 미국의 독립 선언문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의 연설 "미국의 학자" (The American Scholar), 위트먼 (Walt Whitman)의 『풀잎』 (*Leaves of Grass*), 링컨의 명언, 윌슨 (Woodrow Wilson)의 이상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통된 희망은 다양한 형태로 수 백년간 이야기 되어지다가 그 공통된 희망이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용어로 처음으로 1931년 아담스(J. T. Adams)에 의해 그의 저서 『미국의 서사시』*(The Epic of America)*에서 언급되었다. 아담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that dream of a better, richer, and happier life for all our citizens of every rank which is the greatest contribution we have as yet made to the thought and welfare of the world."[18]

---

17) Wilfred L. Guerin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86.

아메리칸 드림은 초기 미국으로 건너온 영국 이주민들이 새로운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자체였다. 본국에서의 박해를 벗어나고자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난 청교도인들에게 이 신대륙은 종교적, 세속적인 구속에서 벗어나 건설한 '제 2의 낙원'을 의미였다. 힘든 긴 여정 끝에 찾아온 신대륙이 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리라고 여겼다. 퓨리턴들은 검소하고 성실한 가운데 양심적이고 유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고, 물질적인 성공을 신의 은총이 내린 증거로 여겨 명예롭게 생각했다. 미국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하는 꿈을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한 구절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19]

스필러(Robert E. Spiller)는 미국을 이상주의와 물질주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20] 청교도인들은 새로운 땅 미국에서 새롭게 새 삶과 국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음과 동시에 새로운 땅에서 전보다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다. 처음 미국을 발견했을 때는 영국인들은 모두 동부에서 생활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동부에서 돈을 벌기 어려워지자 금을 찾기 위해 풍요로운 서부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해져 갔다. 인간의 높은 이상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인들은 물질적인 성공을 신의 은총이라고 여기며 감사히 생각했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 할 때 물질주의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개념인 것이다.

---

18) Federic I. Carpenter, *American Literature and the Dream*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5), p. 5.

19) Thomas Jefferso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Political Writing of Thomas Jefferson,* ed. Edward Dumbauld (New York: Liberal Arts, 1955), p. 3.

20) Robert E. Spiller,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1955), p. 5.

또한 더글러(Carl N. Degler)는 아메리칸 드림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 하면서 자본주의와 청교도주의를 내세웠다. 애초에 미국은 과거 봉건 귀족정치를 받아들이지 않아 모든 사람을 계급에 의해 나누지 않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보았다.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부당한 계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유럽국가, 특히 프랑스는 가족 경영회사의 성격을 띄었는데, 이와 달리 미국은 중세 귀족 전통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가족경영으로 경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 경영의 형태를 띄었다. 미국은 독립적 자본주의를 강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은 청교도주의를 추구하였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것[21]이라고 하면서 자본주의를 이야기 하였다.

B. 아메리칸 아담의 원형

처음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을 때 에덴의 동산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있었던 것 같이 미국으로 건너와 새로운 에덴의 동산을 건설하려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메리칸 아담(American Adam)이라는 신화적 신세계의 영웅이 필요했다. 문학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이야기함과 동시에 아메리칸 아담에 대해서도 정의해 보고 작품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도록 한다. 아메리칸 아담에 대해 루이스(R. W. B. Lewis)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Closely related to the Myth of Edenic Possibilities is the concept of the American Adam, the mythic New World hero. In The American Adam, R. W. B. Lewis describes the type: "a radically new personality, the hero of the new adventure: an individual emancipated from history, happily bereft of ancestry, untouched and undefiled by the usual inheritances of family and race; an individual standing alone, self-reliant and self-propelling, ready to confront whatever awaited him with the aid of his own unique and inherent resources."[22]

---

21) Carl N. Degler, *Out of Our Pas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0), pp. 6-7.

위에서 말한 대로 아메리칸 아담이란 제도나 역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고 자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도에 부합하지 않고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몇 개의 문학작품의 인물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문학작품으로 쿠퍼(James Fenimore Cooper)의 범포(Natty Bumppo)를 통해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범포는 『가죽 양말 이야기』(*The Leather-Stocking saga*)[23]의 주요 인물이다. 내티 범포의 성격을 "too proud of his origin to sink into the condition of the wild Indian, and too much a man of the woods not to imbibe as much as was at all desirable, from his friends and companions"[24]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티 범포는 원죄(the Fall) 전의 아담의 모습을 띄고 있다. 그는 황무지의 아들이면서 문명화의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영원히 도피하는 인물이고 서부영웅의 문학적 증조부 같은 인물이다. 그는 에덴동산의 인간 태초의 아담같이 문명에 오염되지 않고 인간의 숭고함, 존엄, 고결성을 간직한 존재이다.

또 다른 인물로는 허클베리 핀(Huck Finn)을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아메리칸 아담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으며 헉은 문명과 사회 속에서 순응하며 사는 삶을 거부하고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엘리엇은(T. S. Eliot) 헉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 ... one of the permanent symbolic figures of fiction, not unworthy to take a place with Ulysses, Faust, Don Quixote, Don Juan, and other great discoveries that man has made about himself.[25]

헉은 미국 문학에서 아메리칸 아담의 모형을 확실히 갖춘 인물이다. 더글라스

---

22) Wilfred L. Guerin *et al.*, p. 187.

23) *The Leather-stocking Tales*은 *The Deerslayer* (1841), *The Last of the Mohicans* (1826), *The Pathfinder* (1840), *The Pioneer* (1823), *The Prairie* (1827) 다섯 작품을 이야기 한다.

24) James Fenimore Cooper, "Preface to the Leather-Stocking Tales," *American Poetry and Prose,* ed. Norman Foerster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p. 350.

25) Yoo-Jo Kim, *The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A Brief Note* (Seoul: Hyung-Seoul Publishing Company, 1996), p. 137.

(Douglas) 부인의 집에서 여러 사회적 관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에서 헉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알 수 있다.

> The Widow Douglas she took me for her son, and allowed she would sivilize me; but it was rough living in the house all the time, considering how dismal regular and decent the widow was in all her ways; and so when I couldn't stand it no longer I lit out. I got into my old rags and my sugar-hogshead again, and was free and satisfie d.[26]

문명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자연인의 모습은 아메리칸 아담의 성격이므로 이러한 성격을 가진 헉을 아메리칸 아담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겸손함, 재빠름, 용감함, 자연 속에서 문명의 해택 없이도 순응해서 살아 갈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헉의 아메리칸 드림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어떠한 구속과 편견, 모순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었고 작품에서 자신의 바람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 ... Clemens exhibits a belief in natural goodness, the innately decent proclivities of the "heart" that has not been corrupted by inherited prejudice and the coercions of established institutions. Huck Finn is his supreme assertion of such a belief, and Hank Morgan is in some ways a grown-up Huck who instead of being in passive flight *from* society is in aggressive conflict *with* it....[27]

마크 트웨인(Mark Twain)은 “natural goodness”를 그의 작품을 통해 나타내면서 헉을 통해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설명하였다.

헉의 모습과는 달리 호손(Hawthorne)의 “영 굿맨 브라운”(Young Goodman Brown)

---

26) Mark Twain,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73), p. 2.

27) Tony Tanner, "The Lost America-The Despair of Henry Adams and Mark Twain,"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Henry Nash Smith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p. 159.

에서는 아메리칸 아담의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영 굿맨은 전형적인 미국인의 영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퓨리턴의 전승의 중요한 한 부분인 죄악과 원죄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힌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허클베리 핀도 영 굿맨 만큼이나 많은 인간 본질의 악한 모습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영 굿맨의 부정적인 어둠으로부터 헉은 특유의 유머와 인간성으로 구출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전통적인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허클베리 핀과는 달리 새로운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샐린저(Salinger)의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홀든(Holden Caulfield)은 사회의 일부분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학교를 벗어난 새로운 삶으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홀든은 부정직한 사회 속에서 집요하게 그리고 우스꽝스럽게 정직한 외톨이로 비춰지고 있으며 결국 그의 이야기는 요양소에서 끝이 난다. 이 작품에서는 현실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인간의 원초적 순수성을 갈구하는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작품으로는 게츠비(Gatsby)라는 인물을 통해 아메리칸 아담을 이야기하고 게츠비가 꿈 꾼 아메리칸 아담에 대한 이야기인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의 『위대한 게츠비』*(The Great Gatsby)*이다. 이 작품은 미국인의 꿈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미국문학 이라고 할 수 있다. 무일푼인 자신이 첫사랑 데이지(Daisy)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녀의 사랑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오직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게츠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다. 그는 5년 전 자신의 사랑이자 지금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데이지가 자신이 부자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환상에 사로 잡혀 꿈을 이루기 위해 돌진한다. 그러한 사랑은 역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결말을 내면서 패배하게 되는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담고 있다. 무일푼에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돌진해가며 그녀의 사랑을 되찾으려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은 순수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으로는 물질만능주의의 모습으로 부패한 방법을 통해서 부정한 돈을 모아 부자가 되는 모습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은 순수한 것이 아닌 부패한 아메리칸 드림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에 대해 트래스크(D. F.

Trask)은 “inescapably a general critique of the 'American Dream'”이라고 표현하였다.[28] 게츠비가 목표를 위해 나아갈 때 일과표를 써놓고 항상 자기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며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저녁 9시까지 쉬지 않고 일과 공부를 하며 피나게 사는 모습은 밴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소년시절과 흡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체이스(Richard Chase)는 게츠비가 밴자민 프랭클린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임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Fitzgerald suggests near the end of the book that Gatsby is in the legendary live of Benjamin Franklin or Poor Richard. So we see from the self-disciplinary schedule Gatsby had written down as a boy and had always kept with his... But he is also of the company of Natty Bumppo, Huck Finn, and Melville's Ishmael. For although he is treated with more irony than they, as befits a later wordliness, he shares their ideal of innocence, escape, and the purely personal code of conduct. Like them he derives his values not from the way of the world but from an earlier pastoral ideal.[29]

게츠비의 근면한 모습이 밴자민 프랭클린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는 결국 그 근면함으로 부정적인 부를 취득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 역사에서의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와 그와 더불어 아메리칸 아담이 미국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다. 이 둘은 필연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둘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겹쳐진 내용이 있다면 같이 합쳐서 설명하였다. 작품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나선 인물을 아메리칸 아담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어떤 작품에서는 순수한 꿈을 계속 지니고 지켜나가면서 그의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물을 그렸고 그와 반면에 꿈을

---

28) David F. Trask, “The End of the American Dream,” *Fitzgerald's The Great Gatsby: The Novel, The Critics, The Background,* ed. Martin Stinmann, J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p. 213.

29) Richard Chase,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7), p. 165.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그 꿈이 변색되고 퇴색되어 가면서 왜곡되고 뒤틀린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보이는 작품도 있었다. 아메리칸 드림은 논리 정연하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아메리칸 드림이 여러 형태로 문학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Ⅳ. 『분노의 포도』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의미

A. 미국서부의 개척정신

1939년『분노의 포도』를 출간 할 당시에 스타인벡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쇠약해져있는 상태였고 이 작품은 힘든 신체적 한계를 이겨가며 나온 작품이다. 이『분노의 포도』의 모티브는 스타인벡이 캘리포니아의 이주 농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으면서 썼던 『하비스트 집시들』(*The Harvest Gypsies, 1936)*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그 작품은 후에 『그들의 피는 강렬하다』(*Their Blood Is Strong*)으로 다시 재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가 위의 작품을 쓰기 위해 직접 "후버빌"(Hoovervilles)을 찾아다녔고 이주 농민들과 함께 생활 하였다. 위의 작품은 경험한 내용을 적은 일종의 보고서이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곧이어 출간된 『분노의 포도』에 큰 바탕이 되었고 이 내용들은 중간 장(inter-chapter)에 삽입되었다. 즉, 『분노의 포도』는 스타인벡의 경험에서 나왔고 직접적 관찰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이 출판 될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스타인벡의 작품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어 졌는데 그 이유로는 수치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을 왜곡하여 국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 때문이었다. 하지만 비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서관에서는 부적절한 도서로 『분노의 포도』가 선정이 되어 도서가 금지되기도 하고 심지어 책을 불태워 버리기도 하는 과격한 사회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의 격한 반응과 일부 부정적 평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포도』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큰 인기와 관심을 누렸으며 1939년 『분노의 포도』가 출판되고 그 다음 해인 1940년에 퓰리처상을 받는 영광을 누렸다. 그의 소설은 사실적으로 그 당시 사회상을 잘 묘사하였다는 평이 많았다. 물론, 사회 고위층들은 농민들의 생활을 왜곡하였다고 비난하였지만 실제로는 소설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잘 이야기 해 주고 있다고 서민들은 이야기 했다.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를 프로레타리아 작가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서민들은 이 작품이 나온 후에 그들의 생활상을 알리고 자신들의 생활이 나아지길 바랐다.

Thirty-six unemployed men and women picketed Oklahoma's state capitol for two hours Saturday calling on Governor Phillips to do something about conditions portrayed in John Steinbeck's novel, *The Grapes of Wrath*, One of their signs stated "Steinbeck told the truth". Eli Jaffee, president of the Oklahoma City Workers' Alliance, said that "we are the Okies who didn't go to California, and we want jobs." Phillps refused to talk with the group. He said that he considered that the novel and the movie version of the book presented an exaggerated and untrue picture of Oklahoma's tenant farmer problems as well as an untruthful version of how migrants are received in California.[30]

『분노의 포도』의 출판 후 즉각적이고 강렬한 사람들의 반응은 『톰 아저씨의 오두막』*(Uncle Tom's Cabin)*이 만들어진 이래로 미국 소설의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나는 격렬한 반응이었다.

소설의 구성을 살펴보면 삼십 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열네 장은 조드 일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이는 대화체 형식의 짝수 장(narrative chapters)에 속하며, 나머지 열여섯 장은 중간 장으로 불리었다. 중간 장은 설명적인 에세이로 이루어지거나 대 이주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상황을 전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홀수장인 중간 장에서는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 인칭 기법을 사용하였고 다양한 산문 형태를 사용하였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회 환경과 자연 환경, 즉 오키들이 처한 현실의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 중간 장은 일반적인 오클라호마 사람들의 생활을 그리고 있으면서 조드 일가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짝수 장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형태상으로 뚜렷이 구분되는 서술방식을 유지하나, 내용상으로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는 문장 구성의 형태이다. 『분노의 포도』는 평범한 장면들에 약간의 줄거리가 첨부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특별히 등장인물들이 복잡하게 연류 되어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 때문에 조드 가족의 이야기는

30) Martin Saples Shakley, "The Reception of the Grapes of Wrath in Oklahoma,"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25 years,* p. 231.

평범한 가족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분노의 포도』는 미국의 대공황을 배경으로 한 대 서사시이다. 1930년대에 오클라호마(Oklahoma)의 한 농가인 조드 일가가 자신의 농지를 트랙터에 의해 빼앗기고 급격한 사막화로 인해 더 이상 자신들의 살 곳이 없어지면서 살 길을 찾아 서부로 쫓겨나가다시피 떠나게 되고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족애와 인간애 그리고 기본적인 생존 욕구 충족을 위해 싸워나가는 인간의 본능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서부 이주라는 의미가 미국인들에겐 하나의 아메리칸 드림으로써 희망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조드 일가에게도 그리고 소설 안에 등장하는 서부로 향하는 무수한 이주민들에게도 자신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고 희망으로 비춰진다. 『분노의 포도』는 여러 각도에서 분석되어지고 있다. 가족애와 공동체애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각도로 다루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지리적으로서의 서부의 의미는 무엇이며, 『분노의 포도』는 성서적 의미가 큰 작품이기 때문에 『분노의 포도』와 구약 성서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가나안(Canaan)으로서의 서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서부로 향하는 조드 일가의 모습과 그들에게 서부는 어떤 의미로 비추어졌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 논문의 주제인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 할 때 서부로의 이주(westerning)라는 의미가 또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남북 전쟁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서부로 이주했다. 남부에서 미국의 생활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정착하여 갔지만 프론티어(frontier)에 사는 이주민들은 시장으로 접근하는데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고, 대농장주들이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자 서부로의 이주를 결심한다. 또 다른 이주의 이유로는 서부에 금, 은의 매장량이 많았고, 소나 양을 방목하기에 알맞은 짧은 풀로 뒤덮인 넓은 목초지 때문에 많이 이주해 갔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원과 산간 초원에 의해 이끌렸다. 서부로의 이주는 단순히 동부에서 서부로 인구의 이동과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영국에서 새로운 땅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품었던 희망과 같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것까지를 의미했다. 미지의 서부라는 곳은 항상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영감이자 위안이 되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초, 남서부 지역에 철도가 건설되자마자 이 지역에는 영국 계

미국인의 수가 급증했으며, 철도 건설과 함께 그 철도를 따라 밀려오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탄광촌을 찾았고, 그 외에도 목장, 농장이 크게 늘었다. 1869년 장대한 대륙횡당 철도의 완공에 이어 수많은 지선이 건설된 것도 정착을 촉진했으며 정부 토지정책도 서부 횡단에 한 몫 하였다.[31] 정부 토지정책이란 1800년에 토지를 싼값에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 이 조례는 개인에게 320 에이커씩 싼 값에 제공하고, 총액의 25%씩 4년에 걸쳐 신용대부를 허용하였다. 1804년 상한선을 160 에이커로 줄여 이 법안이 개정되었으나 국유지가 에이커당 2불에 팔려 80불만으로도 농장을 구입할 수 있었다.[32]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은 서부로 향하는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스미스(Henry Nash Smith)는 서부이주를 이야기 할 때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역사상 기록된 가장 큰 민족의 대 이주라고 이야기 하였다.[33] 동부는 이미 번영한 곳이었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찾기란 시간이 지날수록 힘든 일었으며 사람들에겐 서부라는 곳이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꿈을 가지고 서부로 향했다.

미국인들에게 서부라는 장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부를 마지막 프론티어로 여겼다는 점도 있다. 미지의 서부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같이 프론티어에 대한 기대도 같은 의미였다. 하지만 그러한 프론티어가 서부의 개척을 통해 더 이상의 프론티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대체로 1890년까지는 정착민들이 캘리포니아연안까지 거주하게 되어 더 이상의 프론티어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34] 이러한 프론티어를 가장 명확하고 영향력 있게 진술한 사람이 바로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이다. 그는 "미국 역사에서 프론티어의 중요성"(The Significance of

---

31) 엘렌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p. 247.

32) John M. Blum *et al.*, *The National Experience: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p. 164 참조. 최한용, "John Steinbeck의 소설에 나타난 American Dream의 주제", p. 13에서 재인용.

33) Henry Nash Smith, *Virgin Land: The American West as Symbol and Myth*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0), p. 3.

34) Frederick Jackson Turner,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p. 9.
"frontier"라는 말은 원래 "평방 마일 당 2인 이상의 인구밀도를 지닌 정주지의 가장자리"라는 뜻이다. *Ibid*, p. 3 참조.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이라는 자신의 논문에서 백인들이 서부에 정착한 것은 즉, 자유 토지가 존재했다는 것, 그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인들의 서부 정착이 진척을 보았다는 것은 미국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이야기이다. 프론티어의 팽창이 개인주의와 애국심, 민주주의를 고무시켰고 미국인의 지금과 같은 특성을 가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제 프론티어는 사라졌고 그와 더불어 미국사의 첫 시기가 막을 내렸다"고 결론을 지었다.[35] 물론 서부 개척을 통해 마지막 프론티어가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서부 개척을 통해 또 다른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 서부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황폐한 야만의 땅이 근대 문명으로 변환되었고 이주자들의 꿈과 희망이 미지의 땅, 야만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려 번영의 결과를 가져왔다.

B. 성서적 의미와 가나안(Canaan)으로서의 서부

『분노의 포도』는 성서와 많은 부분에서 닮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목부터 그리고 등장인물과 사건의 전개 과정이 구약성서(the Old Testament)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목은 "조국 찬가" (The Battle Hymn of the Republic)의 "He is trampling out the vintage where the grapes of wrath are stored" 라는 구절에서 따왔다고 보는데 원래는 이 구절은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And the angel thrust in his sickle into the earth, and gathered the vine of the earth, and cast it into the great winepress of the wrath of God"(Revelation 14: 19), "Their grapes are grapes of gall, their clusters are bitter. Their wine is the poison of serpents"(Deuteronomy 32: 32), "The fathers have eaten sour grapes, and their children's teeth are set on edge"(Jeremiah 31:29)

35) 앨렌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2』, p. 262.

『분노의 포도』의 내용 구성도 성서와의 공통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가뭄, 11장부터 18장까지는 여행, 19장부터 30장까지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체류로 명확히 나누어진다. 서부로 떠나는 12명의 조드 가족은 이스라엘의 12부족이며, 12명의 사도들을 나타낸다. 작품의 큰 줄거리의 흐름이 (가뭄, 여행, 그리고 캘리포니아) 이집트에서의 압박, 탈출, 가나안의 땅에서의 거주라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내용과 흡사하다. 가뭄과 땅의 침식은 이집트의 유행병을 나타내며, 은행과 부동산 회사들의 착취와 횡포는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박해한 것과 비교할 수 있으며, 오클라호마를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여행은 이집트인들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이집트를 탈출한 것(Exodus)과 대비시킬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도달하였을 때 동부에서 온 사람들을 오키들이라고 부르며 핍박하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적대적 모습과 닮았다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그 곳 경찰들은 그들이 눈에 가시인 것이다. 이들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가나안인들의 적대적인 분위기와 같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집트인들의 박해를 피해 가나안으로 이주한 히브리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평온한 가나안을 기대하였으나 그와 반대되는 적대적인 가나아인들을 만나며 그들로 인해 핍박받는다. 이런 성서의 부분이 작품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반응과 비슷하다. 오키들이 일자리를 위해 오게 되면 캘리포니아 주민, 자신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비열할지라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주민들을 밀어내려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소설 17장에서 보면 이주 농민들이 후버빌로 모여드는 장면이 나오고, 그 곳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그 규칙이 자연스럽게 법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에서 나오는 법의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같다고 이야기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살인, 도둑질, 강간, 간통, 유혹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며 공중위생을 중요시 한다는 내용, 남에게 친절히 대한다는 것들이 그 내용이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든 캠프장에서 추방시킨 다는 내용도 모세의 율법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처음 조드 가족들에게 캘리포니아에 대한 인상은 놀랍도록 긍정적이었다. 첫인상은 성경에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테하차피 패스(Tehachapi Pass) 정상에서 그 곳을 내려다보는 조드 가족들이 감탄하면서 감격해 하는 장면을 통해 그들의 눈에 캘리포니아가 진정 아메리칸 드림을 이룩해 줄 장소라 확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The vineyards, the orchards, the great flat valley, green and beautiful, the trees set in rows, and the farm houses....
> Pa sighed, "I never knowed they was anything like her." The peach trees and the walnut groves, and the dark green patches of oranges. And red roofs among the trees, and barns-rich barns....
> Ruthie and Winfield scrambled down from the car, and then they stood, silent and awestruck, embarrased before the great valley. The distance was thinned with haze, and the land grew softer and softer in the distance. A windmill flashed in the sun, and its turning blades were like a little heliograph, far away. Ruthie and winfield looked at it, and Ruthie wispered, "It's California." (p. 310)

첫 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할 것 같은 캘리포니아였지만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여 서쪽으로 향해 갈수록 처음에 보았던 낙원의 캘리포니아는 찾기 힘들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땅의 모습을 점점 잃어갔다. 2만 명이 5만 명으로, 10만 명으로, 이제 30만 명이나 되는 이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 고민하면서 밤이 되면 후버빌이라는 곳에 모여들었다. 처음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는 66번 고속도로에서 가족들이 모여 하나의 큰 무리를 만든 것 같이 캘리포니아 안에는 이주민들을 모아 만든 천막촌이 바로 후버빌이었다. 그들의 에덴의 동산인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더 이상 그들의 이상향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 실체는 처절했고 굴욕적이었다. 그들은 잘 곳이 없어 돌아다니면서 잠자리를 고민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굶는 일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마저 점점 생겨나고 있었다. 이주민들이 생존의 문제를 앞에 두고 괴

로워 할 때, 캘리포니아 땅의 지주들은 절대 이주민들에겐 땅을 줄 수 없다는 생각만 하면서 땅을 방치해 두었다. 똑같은 장소에서 극을 이루는 두 집단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한쪽은 살기위해 일자리를 찾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나 다른 한쪽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품삯을 깎고 땅을 놀리고 있었다. 절대 자신의 땅이 이주민들에 의해 침범되지 않도록 막고 있었다. 비록 자신들의 땅이 할 일 없이 놀아나게 될지라도 절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경비를 세워두었다.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좌절하며 점점 분노하고 있었고, 그 분노를 캘리포니아 지주들은 감지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열한 방법을 이용해 막고 있지만 곧 자신들이 위험해 질지 모름에 두려워하게 됐다. 캘리포니아는 일그러진 이주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이 되었다. 자신들의 고향에서 고민했던 일들을 낯선 땅에서 똑같이 고민하게 됐고 이 상황은 그들을 더 외롭게 하고 날카롭게 만들었다. 스타인벡은 실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자신의 소설에서 묘사하고 있다. 분명 조드 가족이 꿈꾸던 낙원 캘리포니아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실체는 서쪽으로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그들의 낙원과는 반대인 모습이 나타났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And then the dispossessed were drawn west-from Kansas, Oklahoma, Texas, New Mexico; from Nevada and Arkansas families, tribes dusted out, tractored out.... They streamed over the mountains, hungry and restless-restless as ants, scurrying to find work to do-to lift, to push, to pull, to pick, to cut-anything, any burden to bear, for food. The kids are hungry. We got no place to live. Like ants scurrying for work, for food, and most of all for land.... They were hungry, and they were fierce. And they had hoped to find a home, and they found only hatred. Okies-the owners hated them because the owners knew they were soft and the Okies strong, that they were fed and the Okies hungry; and perhaps the owners had heard from their grand-fathers how easy it is to steal land from a soft man if you are fierce and hungry and armed. (p. 317)

한 쪽에서는 일자리와 돈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 가는데 다른 한 쪽 캘리포니아 농장에선 풍년을 이뤄서 모든 수확물들이 잘 익어 달콤한 향기를 더해 간다. 이 수확물들은 절대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지지 않았다. 그 달콤한 향기는 곧 썩은 약품 냄새로 변해버렸다. 과수원 주인들, 소규모 농부들은 넘쳐나는 과일들을 눈앞에 두고도 과일을 수확하는데 드는 돈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걸 팔지 못하고 결국 썩게 내버려 둔다. 땅을 가지고 있지만 소작농인 그들은 돈은 없고 늘어가는 것은 빚뿐이었다. 과일을 수확해서 파는 데까지 돈이 훨씬 많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새들이 버찌를 먹게끔 놔두고 남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말라가는 것을 보고만 있고 자주색 서양 자두를 따서 말릴 수 없어 땅에 떨어져 있는 자두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썩어가는 것을 지켜만 본다. 노랗게 잘 익은 배도 마찬가지다. 포도는 고급 포도주를 만든다고 해도 그 포도주를 마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좋은 포도를 화학약품과 섞어 썩은 내가 진동하게 만든다. 더 이상 캘리포니아엔 농작물을 수확하는 소규모 농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은행의 소유이고 대지주만이 존재할 뿐이다. 작품은 끝을 향할수록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물론 잠시나마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국영촌을 그리고 있으나, 그것은 환영과도 같다.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하다. 캘리포니아에는 웃지 못 할 관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은 농작물을 그냥 썩혀 버리고, 다른 한 쪽은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간다.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리라 믿었고 일자리를 찾아 자신만의 하얀 집을 장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떠났던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굶주린 무서운 사람들로 가득찬 슬픈 캘리포니아 현실만 남아있었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에는 배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만이 보인다. 과일들이 달콤하게 익어가듯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 영혼을 점점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d they stand still and watch the potatoes float by, listen to the screaming pigs being killed in a ditch and covered with quicklime, watch the mountains of oranges slop down to a putrefying ooze; and in the eyes of the people there is the failure; and in the eyes of the hungry there is a growing wrath. In the souls of the people the

grapes of wrath are filling and growing heavy, growing heavy for the vintage. (P. 476)

C. Joad가의 삶과 서부의 상징적 의미

이 작품에서의 조드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은 서부로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작품에서 조드 일가가 서부로 이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서부이주의 동기는 작품이 쓰여진 그 당시 미국의 상황과 연관시켜야 한다. 미국은 그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나라 전반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그에 더하여 황진 피해를 크게 입어서 대지가 사막화 되어버렸다. 그 결과 더 이상 비옥한 토지는 없고 그로 인해 농사 지을만한 땅이 없어 농민들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작품 속에 들어나 있고 그것이 조드 가족들이 서부로의 이주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다. 사막화된 토양과 그로인해 말라가는 식물에 대한 묘사가 작품의 첫 장에서 자세히 나타난다. 첫 장의 세 페이지에 걸쳐 27번 되풀이되는 “dust”는 토지 자체를 상징할 뿐 아니라 앞으로 조드 갖고 앞에 펼쳐질 굴곡 많을 삶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36]

In the water-cut gullies the earth dusted down in dry little streams. Gophers and ant lions started small avalanches. And as the sharp sun struck day after day, the leaves of the young corn became less stiff and erect; they bent in a curve at first, and then, as the central ribs of strength grew week, each leaf tilted downward. Then it was June, and the sun shone more fiercely. The brown lines on the corn leaves widened and moved in on the central ribs. The weeds frayed and edged back toward their roots. The air was thin and the sky more pale; and every day the earth paled. (p. 3)

토양의 황폐화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토지가 없으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농부들은 자신의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서부 이주

36) P. E. James and Nelda, Davis, *The Wide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1962), p. 158.

가 시작된 것이다.

서부 이주의 또 다른 이유로는 농업의 기계화와 대기업화를 들 수 있다. 예전에는 농업 이라는 것은 지주가 있고 그 안에 소작농이 그 땅을 개간해서 이윤을 남기고 땅을 빌린 값을 큰 토지를 소유한 지주에게 주는 체제였거나 혹은 자신이 땅을 조그맣게 가지고 자기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경작하는 형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주라는 개념이 사람이 아니라 회사가 되었다. 작품에서는 은행과 금융회사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들은 더 이상 땅을 소작농에게 빌려줌으로써 나는 이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큰 이윤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큰 이윤을 남겨 자신의 회사가 커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소작농들의 생활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작품의 5장에서부터 소작인들의 땅을 빼앗은 트랙터를 경제 체제의 도구로써의 성격을 드러내었고 이 트랙터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 경제 체제와 트랙터로부터 자신의 의지를 빼앗겨 버린 모습으로 표현된다. 트랙터를 모는 사람들이 소작농들을 쫓아 보낼 때 인간미는 찾아 볼 수 없고 기계화의 노예가 된 차가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땅에는 오직 트랙터와 땅의 지도 감독자만이 있으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트랙터를 모는 사람은 예전에 땅을 바라보던 것처럼 땅을 바라보지 않고, 지구의 따뜻함과 힘을 느끼지 못하며 발로 직접 땅을 밟지도 않는다. 그에게 땅은 그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다. 은행도 더 이상 사람들의 생활엔 관심 없고 자신의 이윤 추구만 생각 한다. 트랙터 모는 사람이나 은행은 그저 괴물일 뿐이다. 은행과 금융회사는 더 이상 소작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전에 상대한 인디언들이나 뱀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 인디언에 맞서 싸우고 뱀들을 퇴치하면 해결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존재는 사람이 맞서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니었고 소작인들은 손 쓸 겨를도 없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비록 소작인들이 없어도 트랙터를 이용하여 혹은 다른 기계를 이용하여 그 땅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땅에 대한 애정이 없으므로 그 땅은 트랙터 아래에서 견디다가 죽게 될 것이므로 그곳은 메마른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농사짓던 땅엔 사람들이 사라져 가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의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에 떠밀

려 서부의 캘리포니아로 하나씩 떠나게 된다. 소설의 5장에서 트랙터 모는 이들이 조드 가족과 이주민들을 어떻게 내쫓는지에 대해 나와 있다.

The bank, the monster owns it. You'll have to go.
Well-first the sheriff, and then the troops. You'll be stealing it you try to stay, you'll be murders if you kill to stay. The monster isn't men, but it can make men do what it wants.
But if we go, where'll we go? How'll we go? We got no money.
Why don't you go on west to California? There's work there, and it never gets cold. Why, you can reach out anywhere and pick an orange....(p. 46)

포도라는 존재는 조드 가족에게 특히 할아버지 조드에게 의미가 크며 작품의 제목으로 따왔을 만큼 큰 의미를 차지한다. 포도는 서부 이주 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잘 영글어진 캘리포니아의 포도로 나타났지만 캘리포니아에 도착하여 서부로 더욱 이주할수록 피폐한 이주민들의 모습을 말하듯 포도는 분노의 포도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 포도는 신의 분노나 복수(신명기: Deuteronomy 32:32)를 나타내기도 하고 풍성한 결실의 결과(Numbers 13:23)의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8장에서 할아버지 조드는 캘리포니아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 하는 장면이 나온다. 할아버지 조드는 자신이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때 포도를 마음껏 먹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 한다. 할아버지에게 포도는 풍성함이자 꿈을 의미하였다.

"Come time we got to California I'll have abig bunch a grapes in my han' all the time, a-nibblin' off it all the time, by God!....
Gonna get me a whole big bunch of grapes off a bush, or whatever, an' I'm gonna squash'em on my face an' let'em run offen my chin." (p. 141)

하지만 할아버지 조드는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하여 자신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된다. 할아버지의 임종은 단순히 할아버지 조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지 못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후에 계속될 조드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의 좌절까지 암시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로 가는 이주민들의 꿈의 좌절까지 확대 해석 할 수 있다.

또 다른 의미로의 포도를 소설의 한 중간 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25장에서는 포도가 농민들의 분노로 나타난다. 작품의 제목의 이유가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에 가게 되면 포도는 물론 모든 것이 풍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주민들의 꿈의 좌절이 분노로 폭발하였다. 캘리포니아는 꿈의 낙원이 아니라 실낙원이었다. 한 쪽에서는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못 먹어서 병들어 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이윤이 맞지 않아 잘 자란 수확물을 버리고, 파묻고, 태워버리고 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먼저가 되어 버린 캘리포니아의 현실에 농민들은 좌절하고 그 좌절이 더해져 분노로 변해버렸다.

포도 다음으로 상징성이 강한 것으로 거북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거북은 조드 일가의 여정을 암시적으로 상징하고 있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주하는 미국 이주민들의 꿈을 전부 상징하고 있다. 거북이가 가는 꿋꿋한 삶의 방향은 조드 일가를 이끈다. 그들은 남서쪽을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거북이 나아가는 방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쪽은 이 작품 전체에서 희망의 지표를 나타내는 방향이다. 이런 방향을 향해 거북이 간다는 것은 거북을 통해 조드 일가의 희망을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다. 거북의 꿋꿋함은 조드 가족이 겪은 무수한 시련을 묵묵히 견뎌내며 나아가는 굳건함을 나타낸다.

거북은 씨앗을 껍질 안에 담아 길 반대편에 내려놓는다. 이는 조드 일가가 오클라호마에서 생명, 즉 거북이 내려놓은 그 씨앗을 가지고 미국을 가로질러 캘리포니아에 가서 새로운 생명을 키우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꿈의 장소이고 새로움의 시작을 나타내는 곳임을 소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거북은 아메리칸 드림과 역경과도 관련이 있는 상징물이다. 거북을 조드 일가와 비교하자면, 거북의 등껍질 안으로 들어간 개미나, 거북이 길을 건너는 도중에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상황은 조드 일가가 앞으로의 여정 속에서 겪게 될 위험과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거북 스스로가 껍질 안으로 들어간 개미

를 으깨 죽이고, 차에 치였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조드 가족이 분명 힘든 역경이 앞으로 닥치지만 그것을 해쳐나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조드 일가의 아메리칸 드림은 결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축복일 수 는 없으며 그 여정은 험난함을 나타내고 있다.

> ...But in a moment it was out, headed southwest as it had been from the first.... Young Tom Joad and the preacher watched the turtle go-waving its legs and boosting its heavy, hight-doomed shell along toward the southwest....(p. 24)

조드 가족들이 처음 여행을 시작했을 때는 수중에 154 달러가 있었으며, 살림살이와 절인 돼지고기 두통, 튼튼한 트럭과 건강한 신체가 있었다. 하지만 소설이 전개되어 가면서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 달리 점점 가난해 졌다. 서쪽으로 여행을 하다보니 돈을 써야 할 일이 많아졌고 돈은 점점 떨어져 갔다.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으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노아는 물가에서 살겠다고 떠나버리고 코니는 임신한 아내를 떠나버리고 목사는 죽음을 맞고 마지막에 탐마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면서 처음에 13명으로 시작하였던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조드 가족들은 처음엔 사기가 충만한 행복한 가족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서 가족들의 사기는 떨어져 버렸다. 소설에 나와 있는 조드 가족은 이 당시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이주민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배고픔과 일자리에 굶주린 사람들로 가득 찬 아메리칸 드림일 뿐이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던 조드 일가가 잠시나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한다. 국영 천막촌이라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 국영 천막촌은 다른 천막촌과는 다른 곳이었다. 이주민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경찰들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자신들만의 경찰이 있었고 규율이 있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모두 갖추어진 곳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으며 자신의 노동으로 국영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사람들도 역시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힘겨워 하지만 서

로 신뢰하는 체제로, 예를 들면, 위즈패치 가게에 가서 음식을 살 때 돈이 없다면 20달러까지 외상을 보상해 주고 그 돈은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갚아도 된다고 이야기 한다. 다른 후버빌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좋은 조건들과 서로에 대한 신뢰로 만들어진 국영촌에서 잠시나마 조드 가족은 행복을 맛볼 수 있었다. 그들이 상상해 왔던 이상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그 곳에서 기쁨과 희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곳을 또 하나의 에덴의 동쪽으로 볼 수 있다. 스타인벡은 국영촌과 후버빌이나 회사에서 만들어 준 캠프를 크게 대조해서 그리고 있다. 스타인벡은 국영촌의 품위와 존엄성에 대해 높이 샀으나 후버빌과 다른 캠프에선 인간의 기본권도 보장되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점을 나타내며 부정적으로 그렸다.

"Central commitee keeps order an' amkes rules. Then ther's the ladies. They'll call on your ma. They keep care of kids an' look after the sanitary units. If your ma isn't working, she'll look after kids for the ones that is working, an' when she gets a job-why, there'll be others. They sew, and a nurse comes out an' teaches 'em. All kinds of things like that."

"You mean to say they ain't no cops?"

"No, sir. No Cop can come in here without a warrant."(p. 392)

하지만 국영천막촌의 생활도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한다. 그 곳의 생활은 다른 어느 후버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곳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려면 일자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조드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영촌의 생활은 이상적이었으나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점점 굶주리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잘 익은 과일과 하얀 집에 살겠다는 기대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국영촌을 떠난다.

이 작품은 조드 가족의 희망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리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서 일

어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에 치달을수록 그들의 상황은 악화되어 진다. 홍수로 인해 자신들이 거처하는 헛간에까지 물이 차들어 오면서 위협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이주민들은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 음식을 살 수 없고 구걸을 하고 심지어 훔치기 까지 한다. 분명 그들의 상황은 작품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어쩌다 일자리를 얻어 상황이 호전되는가 싶다가도 결국 다시 제자리에서 배고픔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실에 맞서 싸운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타인벡은 작품에서 캘리포니아를 희망의 아메리칸 드림의 정착지로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절망적으로 소설을 마무리 짓지도 않는다. 이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현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이지만 그들은 불공평한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 분노를 느낀다는 것은 아직 파국이 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 They splashed out through the water, to the towns, to the country stores, to the relief offices, to beg for food, to cringe and beg for food, to beg for relief, to try to steal, to lie. And under the begging, and under the cringing, a hopeless anger began to smolder....
> The women watched the men, watched to see whether the break had come at last. The women stood silently and watched. And where a number of men gathered together, the fear went from their faces, and anger took its place. And the women sighted with relief, for they knew it was all right-the break had not come; and the break would never come as long as fear could turns to wrath. (p. 591)

인물들의 변화상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그래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30장에서 홍수로 물이 범람하여 자신들의 화차 안에까지 비가 들어 올 상황이 되자 아버지는 사람들을 모아 둑을 만들려고 애쓴다. 홍수를 피해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고자 하는 가족도 있었지만 함께 둑을 쌓아 서로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실은 힘들지라도 함께 하면 뚫고 갈 수 있다는 공동체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처음 소설을 시작할 때는 자신

의 가족만 생각하고 내 가족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하고 모두 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내 가족”이 아닌 “우리”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받아들이고 있다. 역시 다른 가족도 “우리 가족” 이라고 생각 하지 않았다면 둑을 같이 쌓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비록 하얀 집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는 꿈은 이룰 수 없었지만 케이시 목사가 작품 속에서 이야기한 “우리는 하나”라는 개념을 실천으로 옮기는 모습을 통해 희망적 결말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적 모습을 보인 또 다른 인물로는 샤론의 로즈를 들 수 있다. 샤론의 로즈는 작품 속에서 계속 가장 이기적인 인물로 묘사되어왔다. 오직 자신의 남편과 자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면서 캘리포니아에 도착해서도 자신들만의 공간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 코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사산된 아이를 낳게 되면서 그녀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마지막에 그녀가 배고픔에 죽어가는 노인에게 자신의 젖을 물림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케이시의 계획을 실천한 것이라 본다. 물론 일부 비평가 중에는 샤론의 로즈의 인물 변화가 극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며, 그녀의 마지막 행동은 비윤리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녀의 성격 변화를 통해 “나”에서 “우리”로 확장 시킨 것에 중점을 두었다. 스타인벡은 조드 가족에게 캘리포니아의 파라다이스를 약속하지 않았다.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황금의 거리로 묘사되지 않았다. 비록 캘리포니아에는 자신들의 꿈의 낙원은 없지만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힘겹게 날 것이고 그 속에서 배고픔에 죽어 가는 사람도 발생할 것이며 또 다른 홍수로 인해 댐은 계속 무너질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절망의 연속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나”가 아닌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스타인벡은 직접적으로 희망의 결말을 내고 있지 않다. 다만 힘겨운 현실이지만 이주민들은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샤론의 로즈의 미소를 통해 암시하고 있을 뿐이다.

V. 결　　론

미국의 많은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 속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다뤄왔다. 쿠퍼에서부터 피츠 제랄드와 드라이저까지 다양한 세기에 걸친 작가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다양하게 해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는 모험심 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아메리칸 아담의 모습을 가진 인물을 통해 자아 성취해 가는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패한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작가들은 아메리칸 드림의 단면만을 나타내면서 미국인의 꿈의 붕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스타인벡은 『분노의 포도』에서 단순히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절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까지 전하고 있다.

『분노의 포도』의 배경이 되는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해 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힘겨운 시기였다. 경제적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들과 농민들의 생활은 특히 어려워져 갔을 뿐 아니라 모래 폭풍으로 인해 비옥했던 땅은 메마른 토양으로 변함으로써 농민들이 농사지을 땅마저 없어져 버렸다.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하는 소작농들은 동부에서의 자신들의 생활을 접고 일자리가 많고 비옥한 땅이 있다는 서부로 이주하게 된다. 소작농들이 서부로 이주함으로써 가진 희망은 처음 종교적 자유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온 유럽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하면서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인벡은 『분노의 포도』에서 "서부"에 대해 강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소작농들의 생활은 토지의 황폐화로 삶을 연명하기가 어려워져 갔고, 농경 사회에 기계화 도입까지 이루어져 모든 농사일을 트랙터가 대신함으로써 그들의 자리까지 위협받았다.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음에 무능력함을 느끼던 소작농들에게 "서부"란 또 다른 희망의 빛으로 여겨졌다. 다시 말해서, "서부"라는 곳은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 희망 없이 동부에서 생활하던 소작농들에겐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분노의 포도』에서 스타인벡은 서부를 미국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낙원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대한 환희도 잠시, 서쪽으로 향해 갈수록 현실속의 캘리포니아는 낙원이 아니라 사실은 실낙원의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들이 도착한 캘리포니아는 잘 익은 과일과 하얀 집들이 있는 그들이 꿈꾸던 꿈의 장소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꿈의 장소는 배고픔으로 굶주린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피난소와도 같았다. 작품에서 탐스럽게 익은 포도는 박물관의 전시 작품처럼 만질 수 없는 허상이었고 배고픔과 부당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는 이주민들의 분노로 익어가는 "분노의 포도"만 존재할 뿐이었다.

이러한 이주민들의 서부로 향하는 여정이나 캘리포니아의 실낙원의 모습은 구약 성서에서 그 비슷함을 또한 찾을 수 있다. 『분노의 포도』에서 조드 가족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서부로 떠나는 과정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는 성경에서 나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동일한 곳이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모세의 이끎에 따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과 환희에 차서 가나안에 다다르는 출애굽기부분은 작품에서 조드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과 같은 곳을 조드 가족들이 테하차피 패스에서 내려다 본 캘리포니아의 전경을 바라보며 잠깐 맛보았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는 절망과 배고픔으로 소리치는 이주민들로 가득한 캘리포니아를 그리고 있었다. 『분노의 포도』는 성공적인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분노의 포도』는 실제 1930년대 미국 서부의 상황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인데 실제 캘리포니아에는 배고픔에 찌든 이주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작품도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듯 힘겨운 모습의 조드 가족들의 모습으로 작품의 대부분을 그렸다.

하지만 스타인벡은 절망적 모습의 서부의 모습만 보여주며 끝내고 있지 않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암시하며 작품을 끝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 속에서 개인의 부와 이득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상황을 헤쳐 가야 한다는 조드 가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비록 그들이 꿈꾸던 풍성한 과일과 하얀 집이 있는 아메리칸 드림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공동체 의식으로 악조건을 이기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을 이야기 하였다. 짐 캐이시가 작품 전

반에서 이야기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사상을 톰 조드와 로즈 오브 샤론이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한 사상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

결국, 완벽한 아메리칸 드림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개인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아닌 공동체적 행동을 통해야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스타인벡의 메시지는 『분노의 포도』 마지막 장면에 함축되어 있다. 특히 작품에서 가장 이기적인 인물, 로즈 오브 샤론이 죽어가는 낯선 노인에게 자신의 젖을 수유하는 모습은 짐 케이시의 사상의 구현이며, 스타인벡이 이 작품에서 제시한 아메리칸 드림의 긍정적 비전이다.

참 고 문 헌

무태리작. 『현대의 휴머니즘』. 서울: 풀빛 출판부, 1983.

엘렌 브랭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2, 3』. 서울: 휴머니스트, 2005.

장경근. "John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에 관한 연구-Humanism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최한용. "John Steinbeck의 소설에 나타난 American Dream의 주제." 박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1991.

Adams, J. T. *The Epic of America.* Lavergne: Lightning Source Inc, 2001.

Benson, Jackson J. "John Steinbeck: Novelist as Scientist." *Novel: A Forum on Fiction,* Vol. 10, No. 3 (spring 1977).

Bloom, Harold. Sterling, *Modern Critical Vies John Steinbeck.* New York: Chelsea Hose Publishers, 1988.

Blum, John. M. *et al. The National Experience: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4th ed.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7.

Carpenter, Federic I. *American Literature and the Dream* . New York: Philosophical Library, 1955.

_____. *The Philosophical Joads in Text and Criticism* . New York: The Viking Press, 1977.

_____. "John Steinbeck: American Dreamer."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Twenty-Five Years*, ed. E. W. Tedlock, Jr and C. W. Wicker Albuquerque: Univ. of New Mexico Press, 1957.

Chase, Richard. *The American Novel and Its Tradit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57.

Cooper, James Fenimore. "Preface to the Leather-Stocking Tales." *American Poetry and Prose,* ed. Norman Foerster. Boston: Houghton Mifflin, 1962.

Degler, Carl N. *Out of Our Pas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0.

Emerson, R. W. *Essay, Representative Men etc. and Poems.* London: Collins Clear Type Press, 1954.

French, Warren. "John Steinbeck: A Usable Concept of Naturalism." *American Literary Naturalism: A Reassessment*, ed. Yoshinobu Hakutani and Lewis Fried. Heidelberg: Carl Winter Universitats Verlag, 1975.

Guerin, Wilfred L. *et al.*, *A Handbook of Critical Approaches to Literature,*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Hart, James D.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48.

Hayashi, Tetsumaro. "Why Is Steinbeck's Literature Widely Read?--What Is the Essence of His Literature?" *Steinbeck Quarterly*, Vol. 13, Nos. 1-2. (Winter-Spring, 1980), 20-23.

James, R. E. and Nelda, Davis. *The Wide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1962.

Jefferson, Thoma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Political Writing of Thomas Jefferson,* ed. Edward Dumbauld. New York: Liberal Arts, 1955.

Kim, Yoo-Ju. *The Literatur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A Brief Note.* Seoul: Hyung-Seoul Publishing Company, 1996.

Peter Lisca, ed. *The Grapes of Wrath: Text and Criticism*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7.

Owens, Louis. *John Steinbeck's Re-vision of America.* Athens: Univ. of Georgia Press, 1985.

Shakley, Martin Saples. "The Reception of the Grapes of Wrath in Oklahoma." E. W. Tedlock, Jr., and C. V. Wicker. Eds., *Steinbeck and His Critics: A Record of 25 years.* Albuquerque, N. M: Th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1952.

Smith, Henry Nash. *Virgin Land: The American West as Symbol and Myth.*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0.

Spiller, Robert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A Division of Macmillan Publishing Co, 1955.

Steinbeck, John. *East of Eden.* New York: Penguin books, 1952.

_____. *The Grapes of Wrath.* New York: The Viking Press, 1939.

_____. *The Log From the Sea of Cortez.*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1.

Tanner Tony, "The Lost America-The Despair of Henry Adams and Mark Twain." *Mark Twai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Henry Nash Smith.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3.

Trask, David F. "The End of the American Dream." *Fitzgerald's The Great Gatsby: The Novel, The Critics*. ed. Martin Stinmann, J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0.

Turner, Frederick Jackson.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3.

Twain, Mark.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New York: Simon & Schuster Inc., 1973.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영어교육	학 번	20078193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오초롱	한문: 吳초롱	영문: oh chorong		
주 소	광주 동구 학동 금호베스트빌 104동 1702호				
연락처	010-5633-2127	E-MAIL: ocrocr519@hanmail.net			
논문제목	한글 :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영문 : American Dream in *The Grapes of Wrath*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년 01 월 07 일

저작자: 오초롱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